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장로 10명, 집사 20명, 권사 65명 피택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총 3,808명이 투표에 참여
오늘 저녁 개강예배, 6개월 교육받은 후 장립 및 취임

교회는 지난 주일(5월 19일) 4부에 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20명, 안수집사 40명, 권사 70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공동의회장인 김창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투표는 총 3,808명이 참여하여 임직자를 선택하는 데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투표 후 곧바로 개표 준비 작업과 저녁 찬양예배 후 본격적인 개표에 들어가 주일 밤 11시 30분까지 장로와 안수집사의 개표를 마치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개표를 계속하여 권사까지 모두 마쳤다.

이번에 피택자는 장로와 안수집사는 총 유효표수의 3분의 2를, 권사는 과반수를 득표하되 70명이 넘으면 순위별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개표 결과 장로는 10명, 안수집사는 20명, 권사는 65명이 피택자로 결정되었다.

피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계재 순서는 나이순이고, 괄호 안은 교구)

• 장로 피택자 (사진 참조)

• 안수집사 피택자:

박노택(3-1) 이호성(13-2) 마숙전(10-1)
장봉순(6-2) 이상호(3-1) 엄기정(8-2)
박중현(7-1) 박문태(11-2) 박창서(2-1)
금호탁(11-2) 최지윤(9-1) 안병호(8-1)
노영한(1-1) 권철(8-2) 안성영(11-1)



최기홍(6-2)



이중섭(2-1)



이승철(1-2)



이갑재(6-1)



진홍용(2-2)



전홍렬(11-1)



이정우(2-1)



김단용(11-1)



황명일(4-2)



손철(4-1)

김규종(9-2) 이병영(1-1) 강희창(9-1)
이찬욱(4-2) 김광호(12-2)

• 권사 피택자:

김석순(8-1) 송정배(11-2) 여옥남(1-1)
유남순(3-1) 강봉순(13-2) 신정호(7-1)
김점순(6-1) 장정숙(3-2) 김화선(1-1)
문정덕(6-2) 이인성(10-1) 김철(8-1)
임원실(13-2) 박송금(6-1) 윤정식(11-2)

김순애(6-2) 김한선(6-1) 김필녀(6-2)
지순애(11-2) 신차식(4-1) 이명균(10-2)
김춘식(3-1) 우정자(9-2) 허연옥(2-1)
이미애(7-1) 김국자(2-1) 이정숙(12-2)
조춘자(5-1) 홍영숙(5-1) 차창숙(3-2)
곽노희(2-2) 최영순(13-2) 김말수(13-1)
한복(7-2) 이숙자(7-2) 이문구(5-1)
안경덕(2-2) 김숙희(10-1) 정정자(4-2)
박옥림(9-1) 성춘순(4-2) 성부자(2-1)
윤송죽(11-1) 이정자(3-2) 노정자(1-2)
김정애(9-1) 윤희순(8-2) 임선영(9-1)
정호진(1-1) 김인자(4-1) 한정희(1-2)
최현자(5-2) 김현순(3-1) 길봉재(9-2)
김의숙(7-1) 반연숙(1-2) 조영숙(5-2)
박효순(8-1) 강순희(11-1) 라중예(10-2)
김은희(7-1) 김은숙(2-2) 황주옥(4-1)
김정순(12-1) 최영실(4-2)

피택자 교육 실시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자에 대한 교육이 오늘(5월 26일)부터 실시된다.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피택자 교육은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각 피택자별로 실시하게 된다. 피택장로는 선교관 301호, 피택안수집사는 교육관 109호, 피택권사는 베다니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첫날인 오늘은 장로 피택자 부부와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가 오후 6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함께 모여 피택자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권면의 시간을 갖게 된다.

충현기도원

설립 18주년 부흥사경회

강사에 후암교회의 손상률 목사

충현기도원에서는 충현기도원 설립 18주년을 맞으며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5월 27일(월) 밤부터 5월 31일(금) 새벽까지 계속될 부흥사경회는 후암교회 당회장인 손상률 목사(사진)가 강사로 정해졌다.

기간 중 새벽기도회(오전 5시), 낮 공부, 저녁집회(오후 8시)로 진행될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충현기도원에서는 차량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 숙박도 제공하고 있다. 숙박은 등록하는 순서대로 하며 식사는 한 끼에 2,000원씩으로 기도원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별 취사는 절대로 금한다.

기간 중 충현기도원 교통편은 다음과 같다.



① 충현교회당에서 기도원으로 출발 : 오전 9~10시, 오후 6~7시

② 성남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 : 오전 10시 10분, 오후 7시 10분

③ 분당 이매촌 한신 아파트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발 : 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④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광주터미널에 오셔서 택시편(5,000원)이 천 곤지암 행 완행버스 타시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기도원 간판 있음) 도보로 약 10분

⑤ 기도원에서 교회로 오는 차편 : 기간 중 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예배 후) 자세한 문의는 기도원으로 하면 된다.

☎ 0347)66-5425, 65-5472



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저녁 집회 ①

징조를 구하라

(사 7:10-17)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빠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 (사 7:10-17)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충현>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기도하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 저녁에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제 저녁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간증’ 곧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아하스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듣자컨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랍, 두 나라가 동맹을 해 가지고 남침한다 하는 소문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할까 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원자폭탄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하시면서 이런 비극은 없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이 돼도 전쟁이 없는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과 아랍이 동맹하여 남침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산림의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중국 같이 큰 나라 아랍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동맹국이 돼 가지고 남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산에 가셨는지 들로 가셨는지

골방을 찾으셨는지 혹은 성전에서 드린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시국에 대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 나라는 65년 내에 망한다. 65년 내에 그 나라는 없어진다.” 참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이 “너는 이 길로 가서 임금 아하스를 만나서 ‘전 민족으로 하여금 구국 기

도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망한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를 아하스에게 전하자 아하스가 하는 말이 “그거 잘 안 믿어지는 데요. 그런 큰 나라가 망하다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다니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왜 응답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오금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 안 믿어지겠거든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65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좀 당겨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65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미리 당겨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구해 보세요.”고 하니가 “아이구,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어려움에 말려들어 가지 않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그래야 되는데 이 임금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 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 - 7)
 - 낮 공부 은혜와 온사(고전 12:4 - 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 - 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 - 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 - 22)
 - 저녁 집회 징조를 구하라(사 7:10 - 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 - 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 - 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 ~ 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 - 9)

는 큰 불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못하겠지만 1987년경에 부산 개성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청해서 부흥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가 차 시간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불과 몇 분 안 남은 기차가 오는데 플랫폼에 다다르니까 한 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려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손에 신문을 들고 읽으면서 웃어 왔는데 기빠, 기빠 그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신사 양반에게 “뭣이 그렇게 기쁠니까?”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뭘데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그래 위협이 되는 모양이지, 그래 가지고 모두들 기빠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부산에도 가니까 교회에서는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하도 기빠서 저녁밥을 안 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두 명씩, 세 명씩 웅기충기 앉아 가지고 “아이고, 그놈의 자식 잘 뒤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한 잔 마시자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 남한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참 위협을 많이 받는구나 김일성이 만나 보기도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패배 의식이 있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이 안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남북한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하겠나, 안하겠나 염려하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번 보여 주이소? 서울에 원자탄 하나 떨어져 버리면 저 일을 어찌 합니까? 전부터 서울에만 죽자 살자 모여 쫓는데 죽을 동 모르고 저리가 사는데 원자탄 떨어지면 저 일을 어찌 합니까? 아버지여, 원자탄 떨어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흡수통일이 되든지 그리할 일이지 전쟁 해가지고 통일되면 참 비극입니다. 아버지여, 1,200만 성도가 있는데 한 마디씩만 기도해도 1,200마디 기도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여, 귀를 기울여서 보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그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그리고 당황하기 쉬운데 이사야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해서 용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받아 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받아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보니 심히 기뻐했어요. “심히 좋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은 세계를 하나님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은 저 천당 안방에 들어 앉아 가지고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돌아 가든가 말든가 그리 안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을 섭리한다고 그러합니다. ‘창조와 섭리’ 받아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그것만 믿고 다음에 안 믿으면 안돼요. 그러나 순간순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중의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입히시고 참새 두 마리가 나무에 앉아서 한 엽전에 팔려가는

㉓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저녁 집회 ㉓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새까지, 들에 피는 백합화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고 먹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는 전혀 안 믿다는 것이 아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글썽다, 글썽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분쇄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받아 하세요.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순간순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섭리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거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자연법칙을 통해서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 자연의 섭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칙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는 그런 자연법칙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나고 그게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연법칙을 통해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제가 물리학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우나 자연법칙도 융통성이 있어요. 가령 말하면 이 세상이 기계같이 되어 있다면 1995년도 그 이전에 정월 초하룻날 눈이 왔다고 하면 해마다 눈이 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기계같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해마다 눈이 안 와요. 눈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시절이 좋을 때가 있고 시절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연법칙을 만들어 두셨어도 하나님의 시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농사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자녀가 없을 때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여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법칙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간의 인지의 법칙, 사람이 지혜의 법칙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가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1979년에 우리 교단에 총무로 계시던 항 목사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저보고 와 가지고 부흥회 한번 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미국에 가는 것이 천당 반쯤 가는 것

입니다. 미국 와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날 소식을 듣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하도 기뻐 가지고 신학생들 점심 다 사줬어요. ‘내 미국 간대!’ 그러니 모두 부러워하는 눈으로 미국 간다는 나를 보고 축하하고 그랬어요.

1979년 5월 15일이 가는 날인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KAL기 747비행기를 타고 고공 저 10,000m쯤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참 신비스럽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내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가면서 사람이 ‘무엇이고? 잘난 사람은 학같이 잘났지만 못난 것은 돼지같이 못나게 생겨 먹었는데 무슨 놈의 지혜가 그리 좋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노? 모두 양철 쪼가리 아니가? 이것저것 뻔뻔해서 맞춰 가지고 3,4백 명을 태워 가지고 미국 갖다 놓는 것 보나 하!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에 대한 경의, 놀라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기도하는데 자연법칙이 움직이고, 기도하는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위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인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의 법칙이 아닙니다. 기도하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기도의 경험을 해본 적이 많으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40년 전후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성공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고신측하고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을 했어요. 고신에 옥중 성도 황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구 서천교회 봉사 목사님으로

가 가위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표 두 개 나오고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멘 기뻐 하고 있는데 그 어른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이것을 탄 사람보고는 잘 말씀을 안 한답니다. 내 보고만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손가락을 잡으셨는데, 사람 눈이라는 것은 이상스럽게 생겨 먹어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더 잘 보이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손을 보니 손톱이 전부다 곰보딱지 인가.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손톱이 그만 우굴통해 가지고 곰보딱지 같이 생겨 먹었는데 “아이고 목사님요, 손톱이 와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자네는 오만 것도 잘 보인다” 하세요. “아이 그런데 보통은 손톱이 미끈미끈한데 목사님 손톱은 왜 곰보딱지같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래 하니깐 “그래 밥 먹이라 밥 먹고 나면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손이 와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손에 얹힌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창 가지고 손을 찢러 가지고 대창 가지고 손을 찢어서 손톱이 빠진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손톱이 열 개 다 빠지면서 우에 그리 참았습니까? 잠자면서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 있어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열 개가 그리 다 빠지도록 손을 찢서 댔으니 아이고 우에 그리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셨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우에 같이 합니까?” 아니 우리도 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당신은 손톱이 빠져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같이합니까 이래 물으니깐 “그래 같이 했다 하면 같이 했는 줄 알지 그것을 자꾸 꼬치꼬치 묻는다.”고 역정을 내시드만요. “목사님요, 우리 후배들 좀 배웁시다. 손톱이 그래 빠지는데 손톱이 빠질 정도로 그러는데 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까?” 자, 그 얘기 들어보니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취조를 하는데 한번은 무술 연습하는 곳인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뒷짐을 진 상태로 묶어 놓고 책을 한 권 갖다 놔줍니다. 책은 방명록이고 취조 책임인데 이 안에 신사참배 안한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항목사가 신사참배 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이실직고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무죄 석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는 안됩니다. 죽여 보소, 내가 신사에 절하는가. 죽여 보소, 내가 신사에 절하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내 손가락 다 망쳐 놓고 당신들이 나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고문을 했는데 내가 당신 책 가지고 와서 이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면 이름이 일치가 되면 용서하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죽이소. 이제 그만 찢고 죽이소.”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뭘 먹노?” 이러드랍니다. 무엇을 먹기에 저리 독하게 생겨 가지고 공산주의 빨갱이들도 손톱 몇 개만 빠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를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 자연법칙을 통해서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인지의 법칙, 사람이 지혜의 법칙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의 법칙도 아니고 기도의 법칙으로 섭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혼자 되뇌이다가 보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집 아이들 미국에 공부할 하는데 가끔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친구가 모두 미국 사람이 돼 놓으니 전화를 해서 “누구 있나” 하면 “헬로우” 하는 것입니다. “아치워라 느그 아바이다.” 그래 하면 “아이고 아버지시요.” “그래 공부 잘하냐?” 지구의 인구가 50억이 넘는데 그 숫자도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딱 우리 아들집에 가드라고요. 얼마나 신비스럽노? 그게 보통 생각하면 안 되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신기해요. 신통해요. 신통해요. 세상에 비행기 신통하지, 전화 신통하지.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앉아 있다고 텔레비전 보면 서울 사람만 보나요? 대구에 있는 사람도 보고, 산간벽지에 있는 전력 가는 데까지 그 텔레비전의 아름다운 장면들, 못난 장면들 다 봅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강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의 법칙도 아니고 기도의 법칙으로 섭리하십니다. 기도하

오셨어요. 저는 그때 조그마한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위임 투표를 하려고 하니 좀 자신이 적어요. 떨어지면 우야꼬 싶습니다.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지만 그래도 웬간하면 위임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황철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요. “웁지, 그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 갔습니다. 목사님께 전후사정을 얘기하니깐 못 간다고 합니다. “예, 못 가요? 이 김덕신이 라는 사람이 좀 못됐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하면 기이이 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저녁에 해라.” 이릅니다. “공동의회를 누가 저녁에 합니까? 낮에 하지.” “그렇지. 못 간다.” 이렇게 합니다. 못 간다 하니 매일 출근하다시피 가 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이소.” 하도 가니까 목사님이 못이겨 가지고 그러면 가지 그래 와 가지고 그날 노아 방주 설교를 하셔서 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공동 의회를 했더니 가위표가 둘만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한 개는 우리 집 사람이지만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분보고 위임목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작어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위임목사 하지 말라고 하나? 또 다른 표는 누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저녁 집회

다 전향을 하는데 목사는 뭇을 먹기에 도무지 손톱이 열 개가 날아가고 발톱이 다 날라간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은 뭇을 먹느냐고 하고 아휴 참 기가 막힌 애기다 하고 그만 저쪽으로 가더니 들창문을 열고 담배만 뽕뽕뽕 피우더라고요. 때는 삼복더위라. 저 책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책 속에 신사 참배 한 신앙의 동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삼복 더위에 바람이 없는데 그 책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여, 저 형사 돌아 보기 전에 책 한 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바람 와 뒀다가 어디 써 잡수실랍니까? 그 많은 바람 와 뒀다가 어디 써 잡수실랍니까? 이 삼복 더위에 바람을 좀 보내줘 가지고 책장을 넘기라 하는 말은 과연 말이지만 저 책 좀 넘겨주소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돌아보기 전에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들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기도 딱 끝났는데 책장이 딱 넘어가면서 두 장도 안 넘어가고 한 장씩 팔랑팔랑 하는데 글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속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힘이 오는데요, 능력이 오는데요, 책장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능력이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책장이 다 넘어 갔데요. 없다. 아버지 요래 넘어 가는 것, 요리 한 번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리 말하지만 잘 안 믿겨져요. "목사님, 참말입니까?" "손가락 봐라." 그래 가지고 한 번에 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어 가지고 보니 책장이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것 아니어요. 기도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기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사"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소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번 부릅시다.

-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주 예수님께 뵙니다
- 그 구원 허락 하신사 날 받으옵소서
-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 3절 한번 더
- 내 힘과 결심 약하여
- 늘 깨어지기 쉬우니
-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 할렐루야

받아 함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믿습니까? 섭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섭리는 세 가지 방법, 즉 자연법칙으로 섭리하시고 사람에게 일부 맡겨서 섭리하시고 마지막에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머물기도 하는 섭리를 하십니다. 자연법칙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대장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그것은 기도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65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그러합니다. 그것을 징조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세번째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그것은 기도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65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믿으세요. 받아 하세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은혜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속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법칙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믿으세요. 받아 하세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은혜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세요. 다같이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다음에는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안보의 징조를 구하라, 둘째는 피의 징조를 구하라, 셋째는 축복의 징조를 구하라' 입니다.

영국의 웨슬레 선생은 일생 동안 "아버지여,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 죽음답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안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같이 "염려는 하지 아니해도 기도" 징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하고 내일 일을 내일 맡기면

안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보의 징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입니다. 우리교회 김예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보건부장관을 하셔도 될 만하고 또 장관 중에 친구도 계신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한번은 심방을 모시고 다니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분의 간증입니다. 일제시대때 대구 근교의 어느 교회의 박 모 집사님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가지고 일본의 구주에 있는 어느 탄광에서 광부 노릇을 했답니다. 석탄을 캐는 일에 광부 노릇을 하는데 그 분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는 일이 기도라. 한 쪽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아

지고 축복을 받으면 모두 목사하고 싶어해요. 여자는 전도사하고 싶어하고. 저는 미리 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 가지고 "아이고,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목사를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이 틈바구니에 다니면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답니다. 그런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김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안보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다가올 일들의 불행한 일들을 예측하고 앞드리 간절한 기도를 하면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느니라" 같이 하신다는 뚜렷한 징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럴 때에 저를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오라고 그래요. 참 나라는 불행하지, 제가 성경을 읽어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유다에서 전쟁의 소문나거든 피하라" 피난가라고 했어요. 피난가는 것이 죄 아니며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도시 한가운데서 하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이겠지요. 피난가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고 우리 형제 여기 다 있고 친척이 여기 다 있는데 내 혼자 가서 살면 뭐하나 하는 마음이 있고 나라는 걱정이고 그래 가지고 참 보텐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드리면 맨날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공산주의 이 이상 더 확장되면 안됩니다. 공산주의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빨갱이나라 되면 안됩니다. 적화되면 안됩니다." 눈물의 기도, 간구, 부르짖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은 오후 한 시에 어느 집사님과 심방을 가려는데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낮시간 인데 그래 겨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들으세요. 주장은 안합니다. 그래 가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집에 가이소. 다음에 심방합시다." 그 길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방언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명에 대한 환상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환상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높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한국 땅이 다 보입니다. 한국 땅이 보이는데 38선이 그어져 있어요. "아버지여, 저거 우에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북한쪽의 땅이 검은 땅이데요. 남한쪽은 회색진 땅이데요. 그리고 만주, 중국, 구소련의 시커먼 어두운 불길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일본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미국을 건너갔어요. "절대로 그리하면 안됩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공산주의 무너져야 됩니다.

서 가야 됩니다. 낙방이 될 수 있는 이 굴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런지요." 기도를 하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흥을 보고 농담을 걸고 그리고 망령된 소리까지 하는데 한번은 기도하니까 "저놈의 하나님은 개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뵈, 하나님을 개라" 그 망령된 말에 노여움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자가 하면서 싸우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는 둘러보니 대체 그 굴 속에 개가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 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집사님 먹은 도시락을 물고 나가버렸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도시락" 하고 도시락을 빼앗으려고 그 개를 따라가니까 잡힐 듯 잡힐 듯 하는데 나와 놓고 보니 갱 바깥이라. 그런데 천지가 뒤집히는 낙방 소리가 들렸습니다. 굴이 무너진 것입니다. 굴이 무너졌는데 그 굴 속에 300여명의 광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천인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우편에서 쓰러져도 절단코 절단코 너는 상함이 없고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지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해가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4월 3일) 저녁 집회 ●

이복이 무너지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38선이 그어진 곳을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머리가 없는 고무래 정(丁)자 십자가였습니다. “우에 머리가 없습니까? 왜 남쪽에만 그렇게 고무래정자 십자가입니까?” “그저는 북쪽에는 십자가가 없잖나? 십자가가 없잖나?” “남쪽에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우에 되겠습니까? 우에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래 기도하는 중에 북쪽을 향해서 고무래정자 십자가가 축이 틀기 시작하더니 백두산까지 십자가가 뻗쳐져 가지고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순간에 38선이 와르르 무너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여, 우에 십자가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흐릅니까?” “북쪽에서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하였고 지금도 죽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여, 이 일을 우에 하면 좋습니까? 이 비극을 우에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것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복이 무력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권능으로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38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이 아프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되이질 우리 죽음의 문제라든가 우리 국가 문제라든가 오늘 있어서 내 개인의 안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보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구하라” 받아 합시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안보의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피의 징조를 구하라” “그 피가 마음속에”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이는 집사님 내외분의 얘기입니다. 내외 중 한 분이 중간에 믿어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세례 분담

을 하려고 남편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부인이 좀 똑똑해요. 부인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데요.” 이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 질라고 카기도 하고 안 믿어 질라고 카기도 하고” “그럼 세례 못 받는데요.” 그랬더니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좀더 기도해 가지고 다음에 받으세요.” 그러니 “그랍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례를 못 준 부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확실히 믿으면 다행인데 안 믿어지면 우야쥬노? 조금 전

내면서 “와 못 갑니까?” 이래 나옵니다. 와 못 갑니까? “그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쇼.” 그러면 돌아누워 버렸는데 숨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 죽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 가지고 죽었는데 식구들은 둘째치고 목사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모른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맡아보면서 양떼를 잘 못 먹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래 죽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된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깨어나더니 그 식구들보고 다른 사람은 다 밖에 나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만 좀 계셔 달라고 그래 목사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식구들은 다 나가고 목사님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니 모기 만한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제정을 맡아 있었

영국의 웨슬레 선생은 일생 동안 “아버지여,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 죽음답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는 안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다같이 “염려는 하지 아니해도 기도” 징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하고 내일 일을 내일 맡기면 안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 말씀드린 그 부인처럼 믿어 질라고 하기도 하고 안 믿어 질라고 하기도 하면 우에 되겠어요? 징조를 구해야지요. 받아 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하던 교회의 선임 목사가 떠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가 죽들이 앉아서 계시는데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래 절제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족의 남편 되는 분이 세상을 떠났지요. 내가 하루는 집에 있으니까 떠날 무렵에 아들이 급히 와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보세요. 가만히 보니 죽겠는 기라. 다른 목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장로님들이나 장로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신앙 성적표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60점이다. 저 사람은 20점도 안된다. 저 사람은 저만하면 90점 짜리다 100점은 없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데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는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곧 가시겠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집사님, 그래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을 발판

는 거라. 교회를 돈을 맡아 있었어요. “내가 식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건덕 상 내용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돈 가지고 가는 것. 큰 돈 나오면 집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를 위해서 목사가 그래도 용서하고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데 임종이 돼가지고 회개를 그래 하더라고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건 하나님의 교회의 돈을 가지고 검은 손으로 장난을 치고 죄를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 회개를 철저히 잘하더라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식구들을 다 들어오라고 하더니 부인보고 회개하고 아들보고 회개하고 나서 “내 곧 간다” 큰 아들보고 “내 죽어서 겪은 일 간증 하려고 하는데, 내 죽어서 몇 분만에 깨어났노?” 이러니 “아이고, 아버지, 한 10분 걸렸지 싶습니다.” “10분, 그래. 내가 그 사이에 되어진 얘기를 한다. 10분 동안에 내가 죽으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불하고 시트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시체 옆에 영혼이 우뚝 서는 기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 가지고 반가이 내 영

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쫓아왔는지 울긋불긋한 마귀라는 놈이 쫓아와서 손을 척 나뻐 채면서 범죄한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나 하는 기라.” 기막힌 얘기입니다. 범죄한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나? “딱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 일을 우야쥬노? 끌려가다가 끌려가다가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 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마귀가 놀래 가지고 손을 반쩍 놓는 순간에 영혼이 몸으로 들어 왔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우리 영혼의 기회는 우리 영혼이 몸에 있을 때 떠나면 우에 됩니까? 떠나면 결정나는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삼척 동자도 알지만 죽은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어요. 그것은 신앙의 사람이나 알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나 알아지는 것이고,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하고 징조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마음 속에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세요. 받아 하세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 생활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안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진 바라”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려진 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 구원에 관한 징조를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 들림을 받아도 아멘 하고 넉넉히 넉넉히 주 앞에 어엿이 믿음으로 서는 신앙 세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것 있거든 회개 하세요. 더듬하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십니다. 다같이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했습니까? 받아 하세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받아 하세요. “즐거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 삼깁니다. 받아 하세요. “먹을라니까, 안 그러면 삼키웁니까?” 다시 한번, “먹느냐, 먹히느냐” 이것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자꾸 여기서 흔들려요. 신앙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교회에 가 가지고 교회를 다 세웠어요. 어려운 교회에 가가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4월 3일) 저녁 집회 ●

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에 앉았는데, 천장과 바닥 나무리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해 보니까요, 천장하고 바닥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교회에 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김덕신 목사 목회에 성공했다 해 가지고 큰 교회 세 군데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고 싶어도 양심적으로 가고 싶어야지. 또 목사로서 천장도 안하고 바닥도 안했는데 가겠나 싶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 가지고 큰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 번도 안 내려오고 3일 동안 단식기도를 했는기라. "아버지여,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런데 가도 이 교회의 천장을 하고 바닥을 해야 되는데 목사의 양심상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내려가야 됩니다. 구역예배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니 새벽녘에 그 바위 위에 큰 글자가 써졌습니다. "불퇴전"(不退轉) 제가 만 들어서 생각하는 것 아니어요. 전혀 생각도 안했는데, 물리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려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리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 가지고 갈 마음도 안 먹고 "절대로 못 갑니다. 찾아오지 마 이소. 못갑니데이. 못갑니데이. 못갑니데이." 다 끊어 내어버리고 지내는데 석 달을 넘겨 지나도 잠잠 소식이라. 소식이 없어요. 내가 환상을 봤지만 잘못 봤나 하는데 석 달쯤 지난 어느 주일이었어요.

1960년대에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보통이 아니어요. 변칙 변칙한 자가용 타고 우리 교회 문 앞에 차를 갖다 대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이 40대 신사 양반이라.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남의 교회 때문에 차를 대 놓으면 우연한 말이고? "여기 주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예?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만 예수 믿겠다고 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이소." 그래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와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원래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믿었는데 미신에 몸서리칩니다. 우리 이웃의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변소 고쳐도 괜찮고 대문 고쳐도 괜찮고 밤에 못 쳐도 괜찮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변소를 고치는데 이 사람(자기 부인을 가리키면서)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건드리면 미신에 사로 잡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잘 찾아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 분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직장

공장 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시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원요일마다 그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날 아침에는 그 사장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친척들이 말입니다. 저것들 예수 믿어 가지고 곧 망한다, 곧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망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무슨 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집사람 한번 보세요. 애기를 가졌는데 애기집 바깥에 애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구 시내에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모두 놀래 가지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을 우야면 좋습니까? 만일 불상사가 벌어지면 이 일을 우에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 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물어봐 주이소." 그런 사건이 생기면 목사가 잠

시고 돌 위에 서더니 그 손을 번쩍 들어 올리서 당신 가슴에 뚫 안는데 보니 그 사모님이라. "염려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가 가지고 사장님을 만나서 "염려할 것 없다고 합니다. 염려할 것 없다 그래요." 그 사모님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 금년에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날 밤에 김덕신 목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뵈었는데 지구상에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지구상의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수천이나 될텐데 그 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꿈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는데 예수님을 다 만났을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인데 여러 수천

그러니까 "걸핏하면 우리 집에 가라고 합니까?" "사람도 주는데 그까짓거 돈 몇 푼 못 주겠나? 그러나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는 거치하고 좀 빌려 오너라." 그러니까 며칠 돼 가지고 빌려 왔어요. 와 가지고 텔레비전을 샀는기라. 텔레비전을 처음 보니까 그리 신기하고 그렇게 좋네. 그때 연속극 '여로'를 봤는기라. 하루는 '여로'를 보고 있는데 깨달음이 옵니다. 서울의 MBC 스튜디오에 한 사람밖에 없는 태현실씨가 전국의 텔레비전 있는 집에는 다 보이는 기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텔레비전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임제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중요한 말이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버리운 바라" 임마누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받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의 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요. 제가 받아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다 눈감고 받아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것이 확실합니까? 징조를 보여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사람이랍니다." 받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한번 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 다오. 열심으로 회개하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것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이 나라와 더불어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안보의 징조를 구하라. 안보의 징조를 구하라. 임마누엘의 징조, 피의 징조를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간단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이 말씀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진실로 은혜가 되여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와 성령으로 하겠사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가 함께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속에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 생활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안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바라"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 구원에 관한 징조를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옵니까? 안 오지. 그래 밤새도록 바깥에 나가 가지고 부렸을 꿇고 "아버지여, 큰 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부다 놀래 가지고 안 봐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밤마다 기도를 하니 얼마나 잠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보통 기도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날 밤도 딱 하나가 됐는데. 환동사진 모양으로 다 환하게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저 건너편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척 걸어 나오세니 다음에는 내가 보고 있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밑에서 불이 훨훨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 손이 하나 나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두 손 가지고 해도 올라오지 못하는 데 한 손가지고 우에 올라옵니까? "주님이여, 이 사람 누군지 건져 주시게 바랍니다."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이예요. 저는 예수님 뵈었습니다. 환상으로 뵈었습니다. 오셔서 저를 한번 꼭 보

명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인데 여러 수천 만 명이 수천 만 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예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수천만분이십니까? 예수님, 그것에 어찌 그리 됩니까? 내가 신학까지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지네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가난한 목사가 왜 가지고 텔레비전을 못 사보고 저녁이 되니 막둥이가 없어졌는기라. 없어져서 찾아보니 만화 가게에서 설치한 텔레비전 보러 가는 거라. 돈주고 입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까 째뽀들이 와서 있는 거라. "이거 큰일났구나" 그래 집에 와 가지고 집사람보고 "여보 텔레비전 하나 사자" "무슨 푼으로요?" "아이고, 어디가 좀 빌려라." "빌릴 데 없으면 천정 집에 좀 가져라."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장우천

(목사, 제4교구, 예비신랑신부교육부 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왜 결혼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마련하여 주셨지만 인간 세상에서 결혼은 언제나 행복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기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정성껏 계속 가꾸어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생활에 관한 설계도와 운영 지침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결혼생활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혼의 참다운 의미와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제정하셨으므로(창 2:18-25) 결혼은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류의 번성과 발전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창 1:27,28)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최초의 만남을 중매 하셨습니다.(창 2:22)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창 2:24) 이렇듯이 결혼은 우리 인간의 성별의 목적에 대한 성취이며 가정생활과 행복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혼자서도 인격적이며 이성적이며 영적인 피조물로서 도덕적인

선택과 지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지만,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관계적 욕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 욕구는 인격적 교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기본이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마 19:12)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창 2:18)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어느 노 부부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오

랫동안 앓다가 마침

내 세상을 떠나시

고 할아버지는

일 주일도 못

되어 자살하

셨다는 소식

이었습니다.

참으로 슬

픈 소식이

었습니다.

저는 그 소

식을 듣고 차

를 물고 가면

서 많은 생각

을 하여 보았

습니다. 왜 할아버

가 자살하셨을까?

그 할아버지는 앓고 계

신 할머니의 모든 뒷바라지

를 해 오시다가 그 할머니마저 세

상을 떠나시니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자신이 살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에서 자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

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 있

다는 것이 사랑받는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

다.

결혼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남자와 여자는 존재에 있어서 독

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2:21)

(2) 남자와 여자는 불가분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창 2:22)," 아담은 하와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 하였습니다.

(3)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벧전 3:7)입니다. "사람의 독

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

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

필을 지으리라"(창

2:18) 아담과 하와

는 혈동자와 보

완자의 관계로

하나님에 의

하여 창조되

었습니다. 남

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하

여 심리적인

고 육체적인

완성을 발견

합니다. 그러

나 타락의 결과

로 결혼은 남용

되었고 이에 따라

모세의 율법과 같은

결혼의 규범이 필요하

게 되었습니다. 결혼에는 하

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으며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과 벌을 받게 됩니다. 결혼의 규범에서 어긋난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출 20:14)

결혼생활에는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창 2:24-25)

(1) 독립의 원칙: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가정으로서의 독립성을 가

져야 합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불완전하면 서로는 상대방에게 나를 완전히 줄 수 없게 됩니다.

(2) 영속성의 원칙: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번 시작된 부부의 관계는 죽기까지 계속됩니다.(막 10:6-9)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서로에게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위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 결합의 원칙: "둘이 한 몸을 이루지르다" 이것은 육체적 결합 이상을 의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며 상대방의 배경, 습관, 상처, 감정, 물질 등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 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친밀성의 원칙: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상대방의 깊은 모습을 배워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시간, 돈, 사용, 생각에 있어서 투명성을 위해 성실하게 대할 때 친밀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결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격 사이의 의미있는 관계는 안전감(security)과 중요감(significance)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안전감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중요감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안전감과 중요감을 갖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연합과, 정신적 연합과 육체적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댄 동산 같은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갖게 될 가정과 결혼의 기초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결혼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몸에 익혀 가정의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성공적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는 예비신부(예비신랑신부교육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바라며 특히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 그 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 부치는 편지 ◆

부모님께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껏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도 이토록 저를 열심히 돌보아 주시었지만 저는 부모님께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무 부족함 없게끔 돌보아 주시는데 저는 매일 말씀을 피워서 죄송합

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시험 공부할 때 힘드신데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생신날 모른 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생신날을 잘 기억해 두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96년 5월 5일

가현 올림

부모님께

이제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네요. 제가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안 일 하시라, 우리들 돌보시라 참 힘드시지요. 또 아버지께서는 회사 다니시면서 우리 먹여 주시라 참 힘드셨죠? 이제는 어버이주일도 다가오고 하니 좀더 착한 가영이가 될게요.

또 홍균이도 잘 돌볼게요.

부모님, 저를 낳아 키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께 가득하기를 기도드릴

게요. 또 부모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릴게요. 부모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996년 5월 5일

가영 올림

(위의 편지는 초등4부 부모님께 편지쓰기 중 김가현, 가영 쌍둥이 편지)

토막소식

▶ 초등1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9일 가족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하였다. 많은 초등1부 가족들의 참여 가운데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연습한 교역자들의 가족 찬송이 있었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특히 학부형 되시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독창자 김의주 선생의 특송이 참석한 회중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 ▶ 초등4부는 오늘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9일 분반공부 후에 특별로 예선을 실시하였다.
- ▶ 중등1부는 오는 6월 16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장기 결석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교회 출석을 독려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 ▶ 고등부는 지난 23일과 24일에 경기도 양수리수양관에서 학생회, 찬양대, 소그룹 연합 수련회를 가졌다.
- ▶ 장년1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6장 10절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 탁아부는 오는 5월 28일(화) 대한수도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그림그리기대회서 입상

지난 5월 18일 동서울노회 주교연합회 주최로 열렸던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우리교회의 유치부 어린이 8명, 초등1부 어린이 1명이 입상했다. 입상자 명단은

전도위원회에서 경찰 선교의 밤 후원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는 지난 5월 14일(화) 오후 7시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강당에서 가진 '경찰 선교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교육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 선교의 밤' 행사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청 경무실이 주관하여 경찰, 전·의경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하는 행사인데 전도위원회에서는 이에 참여하여 김희수 목사가 설교(세상의 빛과 소금)를, 김재균 장로가 기

도를, 이종순 집사가 특송의 순서를 담당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전·의경 훈련생 2,000여명이 참석하여 계속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설교 말씀은 부모의 품을 떠나 힘든 훈련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외 24명이 참석하여 준비하여 가져간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측에서도 높은 관심과 협조로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행사였다.

전도위원회에서는 10개의 직능 전도회(군전도회, 실업인전도회, 교정전도회, 경찰전도회, 학원전도회, 의료전도회, 문서전도회, 특수전도회, 법조전도회, 메스컴전도회)가 있어 각자가 해당되는 직종에서 전도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를 맞으며 *

내가 사랑하는 초등1부

내가 초등1부에서 봉사한 지 어느덧 7년에 접어들었다.

정말 열의를 가지고 100% 심방에 열을 올렸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계절학교를 다녔다. 지금 나는 내가 이리이러했다고 연수와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갓 올라온 꼬마들을 대할 땐 "아이고, 양중스러워라!" 귀이워서 못견뎠고, 그 꼬마들이 1년 후 조금은 의젓해져서 형, 언니가 되어 2학년으로 진급할 때 보내는 섭섭함과 가슴 뿌듯한 대견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찍어내곤 하였다. 3학년, 4학년이 되어서도 "선생님!" 하며 가끔 찾아올 땐 어찌 그리 반갑고 좋은지...

나는 참 아이들을 좋아한다. 특히 순수한 1학년이 좋다. 귀엽고 사랑스러워 1

학년을 못떠나고 있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한다. 좋은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아바, 엄마를 주셔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시니 너희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주일은 이른 아침 찬양 연습으로 시작되고 예배 시간 말씀에 은혜가 넘치며 찬양과 율동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분반공부 시간에 여기저기 모여 앉아 선생님과의 성경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은 뒤질세라 목청을 높여 가르치신다. 찬양대는 다시 모여 다음주 찬양을 연습할 때에 기다리시는 어머니들의 열의도 대단하시다. 그 어머니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회생을, 사랑을 먹고 자라는 저 아이들은 자라서 반드시 나라에는 기둥이, 교회에는 일꾼이, 가정에서는 자랑감이 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 글을 적은 것은 우리 초등1부 선생님들은 나쁜 아니라 모두가 대단

교인 가족 중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대상으로 초등1~6부 연합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

6월 2일,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교회학교 초등1~6부가 연합하여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6월 첫 주일(2일)에 실시될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는 초등1부에서 6부까지 해당 어린이를 초청하여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두 차례 초청 전도 집회를 갖게 된다.

이번 초청잔치는 부모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데 해당 자녀들이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리 관계 및 예배 시간과 예배 마치는 시간 등이 맞지 않아 초등부에 참석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초청한다. 이 날 초등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한 예배시간대에 맞추어 초등부 예배를 실시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초등1~6부의 온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박소윤, 우수상 박성재, 장려상 김다희, 여인선, 가작 이녹경, 장익준, 이효준, 입선 박주영(이상 유치부), 김연희(초등1부)

제5교구 가정의 달 특강

제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교구모임 시간에 가정의 달 특강을 실시한다. 주제는 '가정의 갈등과 신앙적 해결 방법'이고 강사는 총신대 종교교육학 한준기 교수다.

제5교구는 '생활의 중심을 바꾸자'(빌 1:21)라는 교구 목표를 내걸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새가족환영회

오늘 4부예배 후 교구별로

교회는 오늘 4부예배 후 각 교구별로 새가족환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환영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한 새가족이 인도자들과 참석하여 교구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충현복지관

주말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충현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프로그램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다 음 -

- 모집대상 : 학교나 그밖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 30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기간 : 1996. 5. 27 ~
- 프로그램 : 사회 적응 훈련, 일상생활 훈련, 대인관계 훈련 등
- 전화문의 :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 564-4885, 562-0548

한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행여 아직도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 초등1부를 모르신다면 이 싱그러운 계절이 다가 전에 축복된 자리에 앉힐 수 있으시길 간절히 원한다.

이 명 자(초등1부 교사)

초등2부로 어린이를 보내 주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오기는 했으나 밖에서 예배당의 웅장한 모습을 감탄하며 마당만 밟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는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부족하지만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사들이 작은 믿음이지만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2부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하리라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어린이가 주위에 있다면 꼭 교회 학교 초등2부로 보내 주세요.

꽃밭같이 달게 느껴지는 송향자 전도사님의 성경이야기, 어린이를 위해 추운 겨울에도 짧은 반 팔 스웨터를 입고 찬송을 가르쳐 주시는 이쁜이 구혜옥 선생님, 마음 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찬양대를 이끄시는 김명선 선생님, 심방하여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기 위해 새벽에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임미자 선생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이인숙 선생님, 교사들이 어린이를 잘 가르치도록 앞에서 끌어주시는 임무찬 장로님,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강철형, 백영기 부감집사님들...

히된 기도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초등2부에 어린이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향록(초등2부 교사)